



남원소방서, 심폐소생술 홍보 나서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심폐소생술 시범를 향상시키기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섰다. 최근 급성 심정지 환자 목격시 심폐소생술 시범를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2019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범률은 24.7%로 아직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며, 도내 심정지 출동부터 현장 도착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약 6.6분으로 초기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 홍보내용은 △응급처치교육 영상·장비 대여 서비스 운영 △비대면교육 활성화 △노인 도움인력 대상 응급처치교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 교육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 확대 운영 △도민 생활 속 다각적 홍보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부량면 복지기동대, 집수리 봉사 펼쳐

김제시 부량면 복지기동대(대장 김상철)는 28일 부량면 대평리 소재 취약계층 어르신 주택에 모여 비포장된 마당 통행로에 디딤돌을 설치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부량면 복지기동대원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준비한 장비와 재료를 사용해 진행했으며,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디딤돌 설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복지기동대원 모두가 구슬땀을 흘렸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정(情)성 가득 음식나누기

(사)김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병철)에서는 28일 신중동 새마을 부녀회(회장 이순임)와 함께 정(情)성 가득 음식 나누기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2022 신규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5월부터 매월 2회씩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주민들이 거동불편과 경제적 빈곤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밑반찬이나 특식을 지원하고 대상자의 안부 확인도 함께 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사업에 참여한 신중동 부녀회원들은 부녀회장 자택에서 정성을 담아 만든 반찬을 신중동 40세대에 전달하고 외로운 이웃들의 말벗도 되어 드리면서 안부 또한 살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 안성면 봉산마을 주민 화합잔치 열어

봉산마을 원주민·귀농귀촌 에코빌리지 입주민간 화합한마당

무주군 안성면 에코빌리지에 입주한 귀농귀촌인들이 봉산마을 원주민들을 초청하고 화합과 친목을 위한 주민잔치를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안성면 봉산마을은 무주군에서 귀농귀촌인을 위해 조성한 전원마을인 윗마을 에코빌리지와 함께있는 마을이다. 주민 3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5일 에코빌리지 공원앞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봉산마을 주민잔치'는 에코빌리지 입주 주민과 봉산마을 주민 함께 모여 정과 행복을 나누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됐다. 에코빌리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경품을 서로 나누며, 국악한마당 잔치를 함께 진행하면서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모두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행사에 앞서 입주주민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봉산마을 어르신들을 행사장까지 자동차로 모셔오는 성의도 보였다. 닭강정과 수박, 그리고 휴지와 화장품 등 음식과 사은품 마련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에코빌리지 입주주민들이 동참하는 성의를 보였다는 게 류영희 에코빌리지 대표의 전언이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단도 초청해 국악한마당도 마련돼 참석한 봉산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뜨거운 감채를 받았다. 류영희 에코빌리지 대표(봉산마을 3반 반장)는 "원주민들과 에코빌리지 입주주민들간 더욱 친숙할 수 있는



뜻깊은 좋은 행사였다"며 "이러한 화합의 자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전국에서 최고로 지역주민과 화합 잡히는 귀농귀촌인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상·하반기 등 이러한 마을잔치를 열어 원주민들과 입주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들려줬다. 농촌활력과 이종현 과장은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주민자치를 펼쳐준 에코빌리지 귀농귀촌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에코빌리지 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대 음악과 학생들, 음악교육신문 콩쿠르 대상 등 수상

군산대학교 음악과 재학생들이 음악교육신문 전북지사 콩쿠르에서 대상 및 1등상,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우수한 역량을 입증했다. 음악교육신문사 전북지사 주최로 진행된 이 콩쿠르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및 일반부를 대상으로 매해 열리는 대회이며, 실력 있는 학생들의 피아니스트 데뷔무대이기도 하다. 콩쿠르는 25일 문화공간 이룸에서 피아노, 관악, 현악 부분으로 진행되었고, 이지현 학생(3학년)은 피아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성석(1등상, 4학년)과 박고은 학생(장려상, 2학년) 역시 수상하면서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의 뛰어난 실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피아노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지현 학생은 전체 대상 후보에 올라 이 지역의



이지현 이성석 박고은

쟁쟁한 미래 피아니스트들과 끝까지 견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입상자 콩쿠르는 7월 23일 전주 이룸 문화공간에서 열린다. /군산=김판곤 기자



장수소방서, 무주 덕유산리조트 민관 합동안전점검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27일 여름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무주군 덕유산리조트를 찾아 재난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관 합동안전점검은 장수소방서, 전라북도, 무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여 무주군 덕유산리조트의 가족호텔 내수동과 은남동을 대상으로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이용에 필요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소화기기 작동여부, 비상구 관리상태,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등 △주요 구조부 손상·균열, 내·외부 마감 상태, 축대·옹벽 등 상태 △분전반 주위 인화물질 적재 여부, 접지상태, 규격전선 사용 여부 △가스용기 보관 적정성, 가스차단기 정상작동여부 등을 확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관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현행법상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층 설치가 의무이지만, 과거 2017년까지는 층수에 따라 전층 또는 일부층이 면제되어 스프링클러가 없는 공동주택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남원소방서에서는 실태 전수조사 후 △공동주택 관리자 간담회 △화재안전 컨설팅 △우리집 점검의 날 운영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서, 여름철 재난대비 사전 모의훈련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여름 장마철을 집중호우에 대비, 관내 침수취약구간을 정비하고 침수 우려지역에 대하여 남원시청 협조, 관할 지구대 및 교통부서 합동으로 재난대비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될 수 있는 저지대 하상도로의 배수구 정비 등 집중점검 및 요천 강변주차장에서 하천범람으로 인한 긴급 상황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초동조치 및 교통통제 사전모의훈련을 통하여 기관·출동 경찰관 개인별 역할분담 및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서, 상반기 정년퇴임식 가져

고창경찰서(서장 고영완)가 28일 30여년간의 경찰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을 맞은 선배 경찰관들의 '2022년 상반기 정년퇴임식 행사'를 가졌다. 정년퇴임을 맞은 경감 소순관, 유종수, 조판용, 황귀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경찰발전에 기여로 훈장 등과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받고, 재직 중 활동사항을 다룬 영상을 시청하는 등 석별의 정을 나누며 정년퇴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4 columns: City, Phone Number,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of the newspaper.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a climate change campaign featuring a polar bear and the text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The place where it's getting the hottest on Earth 'Arctic' Please protect our home).